

광주시, 영유아 성장 발달 맞춤형 지원 강화

3세→2세까지 대상 확대...조기개입 지원

상담·치료 연계...다문화가정 접근성 ↑

광주시가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성장 발달이 느리거나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지원 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재원 3세 아동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에는 총 1천83명이 참여해 이 중 112명이 1차 심화검사를, 51명이 전문상담 및 치료 연계 지원을 받았다.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 대상 확대, 다국어 서비스 제공, 상담치료 연계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세에서 2세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은 2022-2023년생으로 넓어지고, 수혜인원도 9천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발달검사 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입 효과를 높이고 발달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가족센터와 외국어인문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업 안내문을 5개 국어로 제공하고 심화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광주시교육청과 협업해 심화검사 결과, 상담(치료)이 필요한 영유아 50명에게 최대 12회까지 상담비를 지원해 조기 상담(치료)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며, 센터 내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권역별 전문상담센터 7곳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참여하는 K-CDI 발달검사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센터 심화검사 ▲발달 지연 및 경제선으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을 위한 발달검사 해석 교육과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번진기자



“1회용품 사용 자제” 중동 행정자치부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1회용 컵 사용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소비 줄이기 실천 서약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조영권기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급물살 타나

장관호 “여론조사 100% 경선 제안”

시공천위 요구 수용...정성홍 “환영”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방식으로 100% 여론조사를 제안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장관호 예비후보는 14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민주진보교육감 통합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추대된 장 예비후보는 광주지역 민주진보시민교육감 단일후보인 정성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시도민공천위원회가 경선 방식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며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공천위는 여론조사 100%를 주장하는 반면, 도민공천위는 ‘여론조사 50%+공천위원 투표 50%’를 요구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전남공천위의 여론조사 100% 방식에 대한 이견과 문제 의식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 고민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무관심에 놓여 있는 통합교육감 선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일화의 효과를 높여야 승리할 수 있고, 진보교육감이 승리해야 전남광주만의 교육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성홍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서를 내 “단일화 방식으로 100% 여론조사를 수용한 데 대해 전남광주 미래 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동지로서 크게 환영한다”며 “단일화는 시기와 속도가 중요한 만큼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박선욱기자

생활안전체계 구축 6개 시·군 선정

전남도는 14일 “행정안전부 ‘2026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เดล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나주시·광양시·곡성군·고흥군·장흥군·해남군 등 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시·군은 주민, 민간단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 발굴·점검 ▲안전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한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급

10만원 인상...21만4천명 이달 집행

전남도는 14일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4월 중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124만명에게 총 7천436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지급 규모는 도비 599억원 (40%)과 시·군비 899억원 (60%) 등 총 1천498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경

영주 21만4천37명이다.

전남도는 2·3월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남도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농어민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농협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중동발 위기로 농어민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익수당이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도, ‘햇빛소득마을 공모’ 대응 모색

전력계통 포화·부지 확보 난제

ESS 국비지원 상향 정부 건의

전남도는 1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전략회의’를 열고 전력계통 해법을 논의하는 등 정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시·군, 공공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정부 공모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햇빛소득마을 선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전력계통 확보 방안,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부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

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지난달 31일 사업이 공고됐으며 1차 접수는 5월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31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은 전 지역이 전력계통 포화 상태로 햇빛 소득마을 신청을 희망하더라도 계통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지법 등 까다로운 입지 규제로 인해 부지 확보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여건 개선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국비 지원 상향, 정책융자담보 요건 완화, 농어촌 특화형 금융상품 개설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복지 향상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 모델”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도록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급히 찾습니다]

- 빌딩:현금200억/병원용도/
---조건 건평2,000평/주차100대내외
- 빌딩:30억~50억/7명대기중
---조건 인구밀집지역/월세수익용
- 현금25억/개인병원개설/대단지아파트주변
---승강기,주차5대/10년이내건물

이밖에도 중소형 상가건물/리모델링용 상가/
창고/담양,장성/화순지역 계획관리
2,000평~7,000평까지 매물찾으려고
현장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교환시대:상가,주택,토지,아파트 등등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